

울산, REACH 세미나 10월22일 개최

울산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정밀화학사업단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본부와 공동으로 10월22일 오후 2시 중구 다운동 울산정밀화학센터 1층 교육장에서 제7차 EU REACH 세미나를 개최한다.

세미나에서는 삼성정밀화학 장균우 팀장이 <국내기업의 REACH 대응 사례>, REACH 기업지원센터 이귀호 센터장이 <EU REACH 최신 동향 및 비용 효과적인 대응전략>을 발표할 예정이다.

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임항식 과장이 <완제품의 SVHC 대응방안>, LG CNS 김정권 책임 컨설턴트가 <REACH에 대한 기업의 대응현황 및 IT 방향>, SGS Testing Korea 황태준 부장이 <RoHS 및 EuP 대응 가이드 라인> 등을 각각 발표한다.

울산 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정밀화학사업단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지역 기업의 REACH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·상담·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8/10/21>